

---

碩士學位請求論文

濟州道 高等學生들의 歷史意識

指導教授 金 恒 元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姜 壬 河

1996年 8月

# 濟州道 高等學生들의 歷史意識

指導教授 金 恒 元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6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提出者 姜 壬 河



姜壬河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6年 7月 日

審査委員長 宋 成 大 (Seong Cheong-dae) [Seal]  
審査委員 朴 龍 炯 (Park Yong-gyeong) [Seal]  
審査委員 김 강 위 (Kim Kang-wei) [Seal]

<抄錄>

## 濟州道 高等學生들의 歷史意識

姜 壬 河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指導教授 金 恒 元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역사의식을 조사 분석하여 바람직한 역사의식 형성 방향과 역사의식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려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내 소재한 남·여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585명을 표집하여 역사의식의 기저와 역사의식 발달단계에 따라 조사 분석하였으며, 성별, 학년별, 계열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백분비와  $\chi^2$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역사의식의 기저를 보면, 역사학습에 대한 흥미는 필요성에 비해 다소 떨어지기는 하나 상당수의 학생이 관심을 보였다.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시기는 중 2, 3학년이 가장 높았으며, 역사 영역별로는 문화사, 정치사, 사회경제사 순으로 관심이 높았다. 역사학습의 필요성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역사학습의 목적은 '현재의 우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35.9%), '조상의 얼과 빛나는 업적을 알 수 있다'(30.6%), '지식을 풍부히 하고 교양을 높인다'(26.8%)순으로 나타났다. 역사지식 형성의 인적, 물적 자료로는 학교 선생님과 교과서가 가장 많았으며, TV, 라디오 해설가, 역사소설 등 학교 수업 외적인 것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토사에 대한 관심은 절대 다수가 거주지역내 문화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등 학교 수업에서 지역사회 자료를 많이 활용하지 않은 결과로 보여졌다.

역사의식 발달단계에 따른 분석을 보면, 시간의식으로서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관점은 '현재를 알기 위해서 먼저 과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가 37.8%, '이 현재를 보다 잘 사는 일이다'가 29.2%, '보다 좋은 미래를 건설하는 일이다'

가 27.9%로 나타났다. 역사변천의식, 인과의식, 시대의식에선 대부분의 학생이 잘 인식하고 있었다. 발전의식에선 구체적 시대를 제시하였을 때는 대부분의 학생이 인식하였지만, 세계 일반으로 확대하였을 때는 많은 학생들이 부정적 대답을 하였다. 특히 정신적인 발달을 부정하는 학생이 상당수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역사의 주체를 주체적 입장에서 보는 학생은 많으나 '주변 국가, 외세' 등으로 보는 학생도 두번째로 높게 나타나 좀더 주체의식 함양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우리 문화의 독창성을 긍정하는 학생도 많으나, '상당한 부분이 같거나 모방적이다'라는 학생이 26.9%로 나타나 우리 문화의 독창성, 나아가 역사의 독창성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있어야겠다. 역사의 명분과 실리에 대한 의식으로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한 생각을 질문하였는데 '민족 통일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다'가 35.2%, 당의 야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외교정책이었다'가 28.4%, '민족의 반역적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다'가 20.5%로 나타났다. 역사발전의 동인은 '이름 없는 민중의 힘'이 69.9%, '정치가의 활동이나 외교정책'이 17.1%, '경제발전'이 14.4%로 나타났다. 민족적 긍지 조사에선 '그런대로 살아간다'가 46.2%,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가 27.7%,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가 16.9%, '외국으로 이민갈 수 있다면 이민하겠다'가 9.2%로 나타나 민족적 긍지를 갖지 못한 학생들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역사학습을 통하여 이들 학생의 바람직한 역사의식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현대 세계의 문제점 인식에선 환경오염, 핵, 인간성상실, 전쟁, 빈부격차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역사의식을 조사 분석하여 본 바 학년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고, 성별로는 2개 항목에서  $p < 0.05$ , 3개 항목에서  $p < 0.01$ , 4개 항목에서  $p < 0.001$ 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계열별로는 2개 항목에서  $p < 0.05$ , 3개 항목에서  $p < 0.01$ , 8개 항목에서  $p < 0.001$ 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역사의식 기저의 조사에서 계열별 차이이다. 이것의 가장 큰 요인은 계열별 교육과정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차이를 감안할 때 바람직한 역사의식 형성을 위한 보다 효율적 역사학습이 되기 위하여 역사교사의 지속적인 연구와 지도가 있어야겠다.

# 目 次

I. 序論	1
1. 研究의 目的	1
2. 研究의 制限點	2
II. 理論的 背景	4
1. 歷史意識의 概念	4
2. 歷史意識의 構造와 發達	6
III. 研究의 方法	10
1. 調查道具	10
2. 標集과 資料處理	10
IV. 結果와 論議	13
1. 歷史意識 基底의 分析	13
2. 歷史意識 發達段階에 따른 分析	25
V. 結論 : 要約과 提言	41
參考文獻	44
英文抄錄	46
附錄	49

## 表 目 次

표 1	역사의식의 발달단계	7
표 2	학년별 역사의식의 발달단계	8
표 3	중고등학교 역사의식의 발달단계와 그 특징	9
표 4	설문지의 내용 구성	11
표 5	설문지의 배부와 회수 현황	11
표 6	배경 변인별 자료 처리 인원	12
표 7	역사과목에 대한 흥미도	14
표 8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시기	15
표 9	역사 영역별 흥미도	16
표 10	역사학습의 필요성	18
표 11	역사학습의 목적의식	19
표 12	역사지식 형성의 인적 자료	21
표 13	역사지식 형성의 물적 자료	22
표 14	거주지역내 문화재에 대한 인식도	23
표 15	역사가 주는 교훈의 정도	25
표 16	시간의식	26
표 17	변천의식	27
표 18	인과의식	28
표 19	시대의식	30
표 20	역사발전의식 (1)	31
표 21	역사발전의식 (2)	32
표 22	역사주체의식 (1)	33
표 23	역사주체의식 (2)	34
표 24	문화의 독창성	35
표 25	역사의식에서의 명분과 실리	37
표 26	역사발전의 동인	38
표 27	민족적 긍지	39
표 28	현대 세계에 대한 문제의식	40

# I. 序 論

## 1. 研究의 目的

역사교육은 역사의 주체로서의 인간에게 과거의 인간생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게 하고, 현실 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역사적으로 사고하고 탐구하여 발전적, 합역사적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사적 능력을 길러주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 새역사 창조에 기여하고자 하는 지향성을 가지고 역사의 주체자를 키우기 위한 교육인 것이다.<sup>1)</sup> 즉 바람직한 역사의식을 길러 역사적 능력과 태도를 기르고 민주 사회의 시민적 자질을 함양하는 데 있다.<sup>2)</sup>

역사의식은 역사에 대한 감각, 이해와 사고, 평가와 통찰의 기본 능력과 더불어 역사를 대하는 심리적 내용을 포괄하는 것으로 역사의식은 바로 역사교육의 출발이자 목적인 것이다.<sup>3)</sup>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비판적 사고력을 높일 수 있다. 역사의식은 역사교육 이전에 기초했던 의식 체계이며, 사회적 자각 의식으로서 비판의식을 포함한다. 또한 역사발전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이며 사고의 계통성이며 자아의식과 통한다.<sup>4)</sup>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변화 속의 사회현상들을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 현상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가치관을 기르고, 투철한 역사의식을 길러야 한다.<sup>5)</sup>

학교 교육에서는 역사의식의 정체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이러한 역사의식의 형성이나 발전이 역사공부를 통하지 않고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서 이루어질 때 학생이나 대중의 역사의식은 부정적으로 흐르기 쉽다.<sup>6)</sup>

- 1) 李讚喜(1989), " 歷史意識의 概念과 歷史教育," 「韓國社會科教育學概論」, 教育科學社, p. 307.
- 2) 교육부(1995),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p. 146 ~ 147.
- 3) 李讚喜(1989), 전제서, p. 307.
- 4) 崔敦鎬(1991), 「歷史教育의 現場」, 青年文化, p. 374.
- 5) 李讚喜(1989), 전제서, p. 308.

또한, 역사적 태도와 능력은 학습자의 역사의식의 발달단계에 알맞는 학습지도가 의도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때 더욱 발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역사교육의 출발점이자 목표인 역사의식을 조사 연구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최근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sup>7)</sup>

본 연구는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역사의식 실태를 분석하여 올바른 역사의식의 방향과 역사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역사의식 기저와 역사의식 발달에 따른 역사의식 실태를 분석하여 역사교육현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 2. 研究의 制限點

본 연구의 대상을 제주시에 소재한 4개 고등학교와 서귀포시에 소재한 4개

- 6) 康宇哲(1992), 「역사는 왜 배우는가」, 교학사, pp. 180 ~ 181.
- 7) 역사의식 발달에 관한 연구는 초등학교 5편, 중학교 3편, 고등학교 6편 등이 있다. 그 중 중·고등학생들의 역사의식에 관한 것만 보면 다음과 같다.  
金 湏(1977), 「歷史意識 發達에 대한 調査 研究 -중학생을 중심으로-」, 「光州 教育大學 論文集」, 14집.  
申東烈(1982), 「中學生의 歷史意識에 관한 調査 研究」, 碩士學位論文, 慶北 大學校 教育大學院.  
金愛利(1993), 「中學生의 歷史意識 發達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忠北 大學校 教育大學院.  
金有海(1977), 「高等學校 學生의 歷史意識 構造에 관한 研究」, 「歷史教育」 제21집.  
金贊休(1987), 「高等學校 學生의 歷史意識에 관한 調査研究」, 碩士學位論文, 嶺南大學校 教育大學院.  
孫韓基(1987), 「韓國 高等學生의 歷史意識 發達에 관한 調査研究」, 碩士學位論文, 檀國大學校 教育大學院.  
卓昌植(1990), 「江原道 地域 高等學生의 歷史意識 伸張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江原大學校 教育大學院.  
申東烈(1990), 「高等學生의 歷史意識 發達段階와 效果的 指導方案」, 「歷史教育 論集」 제13·14합집.  
金浩年 (1992), 「高等學校 學生의 歷史意識 發達の 研究」, 碩士學位論文, 嶺南大學校 教育大學院.



---

고등학교의 1, 2학년 학생들에게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설문지로만 조사하였기 때문에 설문지법이 갖는 한계가 있다.



## Ⅱ. 理論的 背景

### 1. 歷史意識의 概念

역사의식은 역사와 의식의 복합어로서 먼저 의식의 의미를 보면, “의식이란 마음의 자각, 변별상태를 말하는 일종의 심리적 작용이다. 의식의 특질은 자아의 자각이다.”라는 설명이 있다.<sup>8)</sup>

역사의식은 좁게는 역사적 감각, 넓게는 시대의식, 연대의식의 뜻으로 쓰여 그 의미를 규정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sup>9)</sup>

역사의식에 대하여 최재희는 역사적 의식이란 초사학적 의식으로서 철학의 차원에 있는 것이며 실존적인 「나」로 하여금 자아의 역사성을 자각하는 의식이라고 하였다.<sup>10)</sup>

이상철은 역사적 의식을 인간 본연의 존재근거에 도달하는 존재의식으로 파악하고 있다.<sup>11)</sup>

이 두 설명은 역사의식은 실존적인 ‘나’로 하여금 ‘나의 역사성’을 자각하도록 하는 존재의식으로 볼 수 있다.<sup>12)</sup>

이원순은 역사의식을 역사적 시기에 대한 의식, 역사적 관심의 의식, 역사적 사고의 계열, 즉 역사적 사고의 계통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누고 이러한 역사 의식은 학습자의 발달단계에 따라 형성, 성장 되어가며 그것은 계기적, 병렬적으로 변천하면서 하나의 단계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sup>13)</sup>

8) 康宇哲(1978), “歷史教育과 歷史意識,” 「歷史教育」 제24집, p. 146.

9) 李讚熙(1989), 전게서, p. 308.

10) 崔載喜(1971), 「歷史哲學」, 靑林社, 서울, pp. 232 ~ 234.

11) 李相喆(1972) “實存照明的 歷史哲學,” 「研究論叢」 2집, 서울대학교육회, pp. 82 ~ 84.

12) 韓京子(1986), “歷史理解, 歷史意識 發達을 위한 教授 方法의 探索,” 「李元淳 華甲記念論叢」, p. 912.

13) 李元淳 外(1975), 「歷史科教育」, 서울:韓國能力開發社, p. 58.

강우철은 역사의식은 가변적이고 창조적이며 미래 지향적이며,<sup>14)</sup> 역사의식을 연대의식과 가까운 것으로 보았다.<sup>15)</sup>

김여철은 역사의식이란 자아발견의식으로서 자아의 생존 번영을 위하여 자아를 객체(사회)속에 참여시켜 객체의 변화와 자신의 향상을 동시에 실현하는 의식작용이다.<sup>16)</sup>

김유해는 역사의식이란 시간적, 공간적인 현상적 실재를 현재란 인간의식에 투사하여 追體驗에 의하여 형성된 의식체계라고 하였다.<sup>17)</sup>

藤井千之助 永井滋郎은 역사의식의 개념을 심리적 측면에서의 역사의식(역사적 흥미, 시간의식, 인과관계의식, 시대구조의식, 발전의식), 역사적 사고력(역사적 관점, 사고방법), 역사적 문제의식(아동의 역사적 체험으로부터 나온 생활의식 내지 시대의식 아동의 주체적 문제의식, 역사비판의식, 역사창조의 행동의욕)으로 나누어진다.<sup>18)</sup>

由良哲次는 역사철학을 역사의식, 역사인식, 역사실체론의 세가지로 구분하고 역사의식이란 역사적이란 것의 표현과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간성이라고 하면서 역사의식을 경험적 의미에서는 직관적이고, 내용으로서는 시간적이고, 옳은 의미에서는 연대사라고 하였다.<sup>19)</sup>

콜링우드(R.G.collingwood)는 “역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며 자기의 존재성에 대한 자아 의식이며 성찰적 행위로 성찰이란 歷史事象에 대하여 역사가가 하는 사고과정을 다시 자신이 생각해보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또, 스톤은 역사의식이란 각 시대의 제 특징을 선명하게 파악하는 역사적 감각이라고 하는가 하면 서양학자들(특히 미국)은 역사의식이란 말보다는 연대적 개념, 시간개념, 공간개념, 비판적 사고등의 표현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였다.<sup>20)</sup>

14) 康宇哲(1975), 「歷史 研究 方法과 그 教育的 接近」, 探究堂, p. 55.

15) ——(1978), 上卷, p. 147.

16) 金麗沘(1975), “國史教育目標의 研究,” 「歷史教育」 제17집, p. 23.

17) 金有海(1977), “高等學校 學生의 歷史意識 構造에 對한 研究,” 「歷史教育」 제21집, p. 5.

18) 宋春永(1986), “歷史的 思考力을 伸張시키기 爲한 史料學習 方案,” 「社會科 教育 研究」 제2집, 韓國社會科教育研究會, p. 32.

19) 上卷, p. 32.

이상의 여러가지 설을 종합해보면, 역사의식이란 심리적 측면에서는 '나'로 하여금 자기의 역사성을 자각하는 존재의식이며, 의식일반으로 볼 때 역사의식은 자아의 자각이란 일종의 심리적 과정으로서, 인지적 과정인 역사적 개념 발달을 수반해야 함을 알 수 있다.<sup>21)</sup>

또한 역사교육의 목적으로서 볼 때 역사교육을 통하여 얻어지는 역사적 이해력, 역사적 식견, 역사적 태도와 능력이며 역사의식은 학습자의 발달단계에 따라 성장해가는 가변적인 것이다.<sup>22)</sup>

## 2. 歷史意識의 構造와 發達

역사의식은 학생의 지적발달 단계에 따라 형성 성장되어가는데, 이원순은 ①古今相異에 대한 意識, ②變遷發達の 意識, ③歷史的 因果關係意識, ④時代構造의 意識, ⑤歷史發達の 意識으로 발달하여 간다고 하였다.<sup>23)</sup>

송춘영은 역사의식을 感古意識으로부터 성장하여 古今相違意識-變遷-發達意識-因果關係意識-社會構造(時代關聯意識)-發展意識으로 발달하여 간다고 하였다. 그 중에서 변천의식이하의 역사의식을 하위의식으로 보았고, 인과의식이상의 역사의식을 상위의식으로 보았다.<sup>24)</sup> 이같은 역사의식의 발달단계를 도표화하면 <표 1>과 같다.<sup>25)</sup>

이러한 역사의식 구조는 학생의 지적 성장과 더불어 단계적으로 발달하여 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 康宇哲(1975), 전계서, p. 48.

21) 韓京子(1986), "歷史理解, 歷史意識 發達을 위한 教授 方法의 探索," 李元淳 教授 華甲記念論叢, p. 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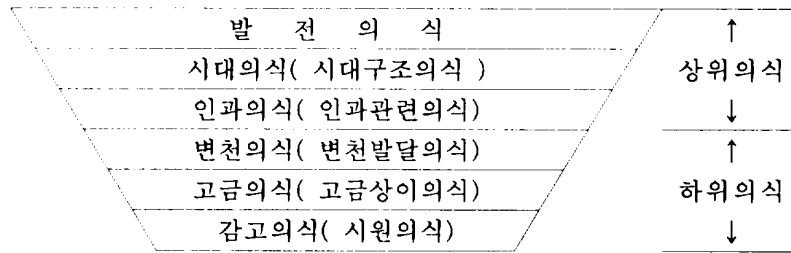
22) 李元淳 外(1975), 전계서, p. 58.

23) 상계서, p. 58.

24) 宋春永(1986), 전계서, p. 32.

25) 卓昌植(1990), 전계논문, p. 7.

<표 1> 역사의식의 발달단계



- ① 感古意識(始原意識) : 막연하게 옛것이 존재한다고 직관적으로 느끼는 의식으로 역사학습이 불가능한 시기
- ② 古今意識(古今相異意識) : 고금이 서로 다르고 옛과 지금을 비교하여 그 상이되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의식
- ③ 變遷意識(發達變遷意識) : 사회의 모든 사실과 현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의식
- ④ 因果意識(因果關係意識) : 역사적 사실에서 인과관계의 존재를 알고 그 관련성과 변화조건을 파악할 수 있는 의식
- ⑤ 時代意識(時代構造意識) : 역사의 발전을 시대별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대의 이해 능력
- ⑥ 發展意識 : 역사를 발전적 측면에서 파악하여 한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계속적 발전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이러한 역사의식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는 동안에 점차적으로 성숙되어간다. 학년별 역사의식 발달단계를 보면 <표 2>와 같다.<sup>26)</sup>

초등학교 시기에는 <표 2>에서 보다시피 역사의식은 시대의식까지 발달되어간다. 그러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시대구조의식이나 시대관련의식은 극히 미약한 편이다. 이같은 차원 높은 시대의식은 중학교에 가서 발달하게 된다.

26) 문교부(1989), 「고등학교 국사과 교육과정해설」, 삼진인쇄주식회사, pp. 135~136.

<표 2> 학년별 역사의식의 발달단계

학년	초 등 학 교					중 학교	고 등 학교
	1,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역사의 식단계	감고의식 (시원의 식)	고금의식 (고금상 이의식)	변천의식 (변천발달 의식)	인과의식 (인과관 계의식)	시대의식 (시대구조 의식)	시대의식 (시대구조 의식 또는 시대관련 의식)	발전의식

중학교 2학년 후반기부터는 시대구조의식이 형성되기 때문에 편년체의 통사 중심의 역사교육이 가능하며 이 시기에 역사교육의 지도가 학문적인 방법론을 도입해 가면서 학습 활동을 서로 할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에서는 인과의식과 시대의식은 더욱 심화되어 역사의식 발달의 마지막 단계인 발전의식까지 이르게 되며, 학년이 상승함에 따라 역사를 발전적으로 고찰하고 역사적 비판력에 대한 안목이 넓어지게 된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역사의식의 차이점을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표현한 것이 <표 3>이다.<sup>27)</sup>

이상에서 고등학생의 역사의식의 발달정도를 요약해보면, 인과의식의 심화, 시대구조의 추상화가 가능하며, 역사발전의식, 주체의식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고등학교 시기부터는 성인이 갖는 의식구조와 발달정도를 갖기 시작한다. 그러나 사실의 개성적 파악과 역사적 의미의 통찰은 대학에 가서 이해가 가능하다.<sup>28)</sup>

27) 日本社會科教育研究會(1972), 「歷史意識研究」, 第一學習社, p. 219, 崔敦鎬 (1991), 「歷史教育의 現場」, 青年文化, pp. 375 ~ 376, 재인용.

28) 李讚熙(1989), 전계서, p. 315.

<표 3> 중고등학교 학생의 역사의식의 발달단계와 그 특징

학교	학년	역사의식 발달단계	특 징
중 학 교	1	시대의식(시대구조 의 식 또는 시대 관련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과의식의 발달</li> <li>○ 인물을 시대적, 사회적 배경과 관련 파악</li> <li>○ 시대구조의식 싹틔</li> <li>○ 개인적 도덕적</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事象 상호간의 기능적 관계 파악</li> <li>○ 사실과 사실의 관련 파악</li> <li>○ 사실과 시대적 배경과의 관련 파악</li> <li>○ 중 2년은 역사의식의 전환기임</li> <li>○ 영웅 숭배적 경향</li> <li>○ 사회의식이 싹틔</li> <li>○ 사회 도덕적임</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의식 확대</li> <li>○ 3학년 2학기에는 발전의식 싹틔</li> <li>○ 시대 구조와 시대 관련 파악</li> <li>○ 사실과 시대적, 사회적 배경과의 관련 파악</li> </ul>
고 등 학 교	1	발전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대구조와 시대관련 파악</li> <li>○ 사회인식의 확대</li> <li>○ 세계의식 확대</li> <li>○ 역사의 동적 파악 가능</li> <li>○ 인간성 성찰</li> </ul>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 이해와 심화</li> <li>○ 사회의식의 심화</li> <li>○ 사회 事象의 비판적, 관련적 파악</li> <li>○ 현대적 사상에 관심 증대</li> <li>○ 역사의 발전과 파악</li> <li>○ 역사의미의 통찰력 싹틔</li> </ul>

### Ⅲ. 研究의 方法

#### 1. 調查道具

고등학생의 역사의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작성 사용하였는데, 선행 연구물들 중에서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문항을 선정<sup>29)</sup>한 것이어서 예비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 검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역사의식의 기저 부문에서 9문항, 역사의식 발달단계에 따른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2문항 중 21개 문항은 선다형 문항으로, 나머지 1개 문항은 자유기술식 문항으로 응답자가 직접 기입토록 하였다. 설문지의 내용 구성은 <표 4>와 같다.

#### 2. 標集과 資料處理

##### 1) 標集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시 지역과 서귀포 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하였다. 제주시 지역에 소재한 인문계 및 실업계 남·여 고등학교 1개교씩 4개 고등학교 서귀포지역에 소재한 인문계 및 실업계 남·여 고등학교 1개교씩 4개 고등학교, 총 8개 고등학교를 무작위 추출로 표집학교를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1996년 2월 1일부터 1996년 2월 8일까지 선정된 학교의 재학생 1, 2학년 1학년씩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각 학교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 회수하였다. 회

29) 孫漢基(1987), 전계논문, p. 49.  
申東烈(1990), 전계논문, pp. 93~97.  
卓昌植(1990), 전계논문, pp. 75~76.



수율은 총 701부를 배부하여 689부를 회수 98.3%를 보였다. 설문지의 배부와 회수 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4> 설문지의 내용 구성

구 분	설 문 내 용	문항번호	문항수
역사의식의 기저에 대한 조사	역사학습에 흥미도	4	1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시기	5	1
	역사 영역별 흥미도	6	1
	역사학습의 필요성 및 목적	7 - 8	2
	역사의식 형성의 인적 물적 자료	9 - 10	2
	향토사에 대한 관심	11	1
	역사에의 기대	12	1
역사의식 발달 단계에 대한 조사	시간의식	13	1
	따른 변천의식	14	1
	인과의식	15	1
	시대의식	16	1
	발전의식	17- 18	2
	역사주체의식	19- 20	2
	역사의 독창성	21	1
	역사의식에서의 명분과 실리	22	1
	역사의 동인	23	1
	민족적 긍지	24	1
	현대의 역사에 있어서의 문제의식	25	1

<표 5> 설문지 배부와 회수 현황

설문지	구 분		성 별		학 년 별		계 열 별		전 체
	남	여	1학년	2학년	인문계	실업계			
배부수	345	356	355	346	360	341	701		
회수수	338	351	349	340	358	331	689		
회수율	98.0	98.6	98.3	98.3	99.4	97.1	98.3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빠지거나 한 문항에 2개 이상씩 응답을 한 설문지 107부를 통계에서 제외시켜(서술형 25번 문항은 예외) 실제로 연구의 대상이 된 인원수는 585명이다. 이를 배경 변인별로 보면, <표 6>과 같다.

<표 6> 배경 변인별 자료 처리 인원

배경 변인	변인 구성	집 단	변인 구성비	계
성 별	남	301	51.5	585
	여	284	48.5	
학년별	1학년	295	50.4	585
	2학년	290	49.6	
계열별	인문계	312	53.3	585
	실업계	273	46.7	

## 2) 資料의 處理

수집된 자료는 SPSS-X에 의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전체와 배경 변인별로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 경향을 백분비(%)를 가지고 살펴보았다. 그리고 배경 변인별 분석은 성별, 학년별, 계열별로 각 집단의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chi^2$  檢證을 실시하였다.

## IV. 結果와 論議

### 1. 歷史意識 基底의 分析

역사의식은 역사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로 발전되며 역사적 이해는 다시 역사적 사고와 함께 역사의식으로 발전한다.<sup>30)</sup> 따라서 역사교육은 학생들의 역사의식에 기초하여 교육되어야 한다. 역사의식의 기저가 되는 사항을 알아 보기 위하여 역사학습에 대한 흥미도, 관심 시기, 영역별 흥미도, 필요성과 목적, 역사의식 형성의 인적, 물적 자료, 향토사에 대한 관심, 그리고 역사가 주는 교훈의 인식 정도 등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역사학습에 대한 흥미도

학습과목에 대한 흥미도는 학습성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역사학습에 대한 흥미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당신은 평소에 역사과목에 흥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전체적인 응답 결과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매우 많다(15.0%), ② 어느 정도 있다(54.0%), ③ 그다지 없다(24.6%), ④ 전연 없다(2.7%), ⑤ 모르겠다(3.6%)로 나타났다. ‘매우 많다’와 ‘어느 정도 있다’를 긍정적인 대담으로 볼 때 역사과목에 대한 흥미도에 긍정적인 응답이 69.0%로 나타났다.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를 보면, 성별, 학년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고, 계열별로는  $p < 0.001$ 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문계열의 경우 ‘매우 많다’가 21.5%, ‘어느 정도 있다’가 54.8%로 나타나 실업계의 7.7%와

30) 金麗沚(1975), 전계서, p. 20.

53.1% 보다 높게 나타났다. 실업계인 경우 인문계보다 상대적으로 흥미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은 학생들 자신이 역사과목을 접할 기회가 적고<sup>31)</sup>, 취직이나 앞으로의 사회진출로 인하여 이를 등한시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표 7> 역사과목에 대한 흥미도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chi^2$	df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	301 (51.5)	6.49	4	53 (17.6)	165 (54.8)	63 (20.9)	8 (2.7)	12 (4)
	여	284 (48.5)			35 (12.3)	151 (53.2)	81 (28.5)	8 (2.8)	9 (3.2)
학년별	1학년	295 (50.4)	2.61	4	45 (15.3)	154 (52.2)	79 (26.8)	6 (2.0)	11 (3.7)
	2학년	290 (49.6)			43 (14.8)	162 (55.9)	65 (22.4)	10 (3.4)	10 (3.4)
계열별	인문계	312 (53.3)	33.42***	4	67 (21.5)	171 (54.8)	63 (20.2)	3 (1.0)	8 (2.6)
	실업계	273 (46.7)			21 (7.7)	145 (53.1)	81 (29.7)	13 (4.8)	13 (4.8)
전체		585 (100)			88 (15.0)	316 (54.0)	144 (24.6)	16 (2.7)	21 (3.6)

(\*\*\* p<0.001)

## 2)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시기

역사의식은 역사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므로,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31) 고등학교의 역사과목 수업시간을 보면, 인문계의 경우 2학년에서 국사 1시간, 세계사 1시간이 있고, 3학년에 국사 2시간, 세계사 1시간이 있다. 실업계의 경우 3학년에 국사 2시간이 있다. 조사 대상이 된 학생 중에는 인문계 2학년 학생만이 역사를 배우고 있는 중이었다.

<표 8>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시기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chi^2$	df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성 별	남	301 (51.5)	17.02**	4	60 (19.9)	37 (12.3)	160 (53.2)	24 (8.0)	20 (6.6)
	여	284 (48.5)			25 (8.8)	47 (16.5)	163 (57.4)	33 (11.6)	16 (5.6)
학 년 별	1학년	295 (50.4)	40.05***	4	49 (16.6)	47 (15.9)	170 (57.6)	29 (9.8)	
	2학년	290 (49.6)			36 (12.4)	37 (12.8)	153 (52.8)	28 (9.7)	36 (12.4)
계 열 별	인문계	312 (53.3)	26.55***	4	60 (19.2)	47 (15.1)	153 (49.0)	24 (7.7)	28 (9.0)
	실업계	273 (46.7)			25 (9.2)	37 (13.6)	170 (62.3)	33 (12.1)	8 (2.9)
전 체		585 (100)			85 (14.5)	84 (14.4)	323 (55.2)	57 (9.7)	36 (6.2)

(\*\* p<0.01, \*\*\* p<0.001)



전체적인 응답 결과는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초등학교(14.5%), ② 중 1학년(14.4%), ③ 중 2, 3학년(55.2%), ④ 고 1학년(9.7%), ⑤ 고 2학년(6.2%)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생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과정에 이르는 시기에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 2학년에 역사 과목을 배우기 시작하고 중 3학년 고입준비에서 많이 접한 결과로 보인다.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를 보면, 성별로는 p<0.01의 유의도를 보이고 있다. 남학생은 초등학교에 19.9%로 여학생의 8.8%보다 더 높게 나타나 남학생이 보다 더 일찍 역사에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학년별로는 p<0.001의 유의도를 보이며, 고 2학년에 응답한 학생이 12.4%로 나타났는데 이는 2학년만이 응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유의도는 없는 것으로 본다. 계열별로 보면

인문계의 경우 초등학교가 19.2%, 고 2학년이 9.0%로 실업계의 9.2%, 2.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실업계의 경우 중 2, 3학년에 62.3%로 인문계 49.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로 볼 때 인문계 학생들은 보다 일찍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역사 수업이 학생들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

### 3) 역사 영역별 흥미도

역사 영역별 흥미도는 역사교육 현장이나 교과 교육 연구에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아 “역사 수업 중 가장 흥미를 갖는 부분은 어느 것입니까?”라는 질문 하였다.

<표 9> 역사영역별 흥미도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chi^2$	df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	301 (51.5)	17.26**	4	88 (29.2)	35 (11.6)	105 (34.9)	29 (9.6)	44 (14.6)
	여	284 (48.5)			59 (20.8)	50 (17.6)	130 (45.8)	19 (6.7)	26 (9.2)
학년별	1학년	295 (50.4)	8.32	4	63 (21.4)	45 (15.3)	133 (45.1)	21 (7.1)	33 (11.2)
	2학년	290 (49.6)			84 (29.0)	40 (13.8)	102 (35.2)	27 (9.3)	37 (12.8)
계열별	인문계	312 (53.3)	26.93***	4	99 (31.7)	46 (14.7)	102 (32.7)	20 (6.4)	45 (14.4)
	실업계	273 (46.7)			48 (17.6)	39 (14.3)	133 (48.7)	28 (10.3)	25 (9.2)
전체		585 (100)			147 (25.1)	85 (14.5)	235 (40.2)	48 (8.2)	70 (12.0)

(\*\* p<0.01, \*\*\* p<0.001)

전체적인 응답 결과는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정치사(25.1%), ② 사회경제사(14.5%), ③ 문화사(40.2%), ④ 사상사(8.2%), ⑤ 외교사(12.0%)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사회과 국사 교육과정의 성격을 초중학교에서의 생활사, 정치사 중심 학습을 토대로 문화사와 사회·경제사를 중심으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각 영역을 세계사의 보편성과 한국사의 보편성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32)</sup> 이로 볼 때 역사수업의 영역별 학습은 무리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배경 변인별로 보면 성별로는  $p < 0.01$ 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학생은 정치사가 29.2%, 외교사가 14.6%로 여학생의 20.8%, 9.2%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문화사가 45.8%, 사회경제사가 17.6%로 남학생의 34.9%, 11.6%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은 문화사에 관심이 많은 반면 남학생은 문화사와 정치사에도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계열별로는  $p < 0.001$ 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문계 학생은 정치사가 31.7%, 문화사가 32.7%, 외교사가 14.4%로 나타난 반면 실업계 학생은 문화사가 48.7%, 정치사가 17.6%, 사회경제사가 14.3%로 나타났다. 인문계 학생은 문화사와 정치사에 고른 관심을 보였으나, 실업계 학생은 문화사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 4) 역사학습의 필요성

역사학습의 필요성 인식 정도가 역사학습의 흥미도에 연결되며, 이것은 바로 학습성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조사는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역사학습의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당신은 역사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전체적인 응답 결과는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매우 필요하다(25.6%),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63.8%), ③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4.8%), ④ 전

32) 교육부(1992), 「고등학교 교육과정(I)」,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 132.

연 필요없다(0.5%), ⑤ 모르겠다(5.3%)로 나타났다. 역사공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매우 필요하다'와 '어느 정도 필요하다'의 누가비율이 전체의 89.4%로 상당히 높은 반응을 보였다. 역사학습의 흥미도 조사에서 69.%가 흥미를 보인 것과 비교해 볼 때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그에 대한 흥미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은 역사수업에 문제점이 있음을 제시해 주고 있다.

배경 변인별로 보면 성별로는  $p < 0.01$ 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학생은 '매우 필요하다'가 31.2%로 여학생의 19.7%보다 더 높은 반면 '어느 정도 필요하다'까지 합친 응답 결과는 여학생이 91.2%로 남학생의 87.7%보다 약간 더 높다.

계열별로는  $p < 0.001$ 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문계인 경우 '매우 필요하다'에 35.9%로 실업계의 13.9%에 비해 매우 높게 반응했다.

<표 10> 역사학습의 필요성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chi^2$	df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	301 (51.5)	16.45**	4	94 (31.2)	170 (56.5)	15 (5.0)	1 (0.3)	21 (7.0)
	여	284 (48.5)			56 (19.7)	203 (71.5)	13 (4.6)	2 (0.7)	10 (3.5)
학년별	1학년	295 (50.4)	5.24	4	65 (22.0)	196 (66.4)	17 (5.8)	1 (0.3)	16 (5.4)
	2학년	290 (49.6)			85 (29.3)	177 (61.0)	11 (3.8)	2 (0.7)	15 (5.2)
계열별	인문계	312 (53.3)	40.08***	4	112 (35.9)	175 (56.1)	11 (3.5)		14 (4.5)
	실업계	273 (46.7)			38 (13.9)	198 (72.5)	17 (6.2)	3 (1.1)	17 (6.2)
전체		585 (100)			150 (25.6)	373 (63.8)	28 (4.8)	3 (0.5)	31 (5.3)

(\*\*  $p < 0.01$ , \*\*\*  $p < 0.001$ )



### 5) 역사학습의 목적의식

학습동기 유발에는 피교육자의 목적의식이 가장 큰 요인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표 11> 역사학습의 목적의식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chi^2$	df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성 별	남	301 (51.5)	8.97	4	10 (3.3)	105 (34.9)	103 (34.2)	72 (23.9)	11 (3.7)
	여	284 (48.5)			4 (1.4)	74 (26.1)	107 (37.7)	85 (29.9)	14 (4.9)
학 년 별	1학년	295 (50.4)	10.92*	4	7 (2.4)	103 (34.9)	89 (30.2)	80 (27.1)	16 (5.4)
	2학년	290 (49.6)			7 (2.4)	76 (26.2)	121 (41.7)	77 (26.6)	9 (3.1)
계 열 별	인문계	312 (53.3)	53.53***	4	9 (2.9)	55 (17.6)	134 (42.9)	100 (32.1)	14 (4.5)
	실업계	273 (46.7)			5 (1.8)	124 (45.4)	76 (27.8)	57 (20.9)	11 (4.0)
전 체		585 (100)			14 (2.4)	179 (30.6)	210 (35.9)	157 (26.8)	25 (4.3)

(\* p<0.05, \*\*\* p<0.001)

전체적인 응답 결과는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인격형성의 길잡이가 된다(2.4%), ② 조상의 얼과 빛나는 업적을 알 수 있다(30.6%), ③ 현재의 우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35.9%), ④ 지식을 풍부히 하고 교양을 높인다(26.8%), ⑤ 공부하는 목적을 잘 모르겠다(4.3%)로 나타났다.

배경 변인별로 보면 성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남학생은 ‘조상의 얼과 빛나는 업적을 알 수 있다’가 34.9%로 가장 높게, 여학생은 ‘현재의 우리를 이해

하는 데 도움이 된다'가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년별로는  $p < 0.01$ 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1학년은 '조상의 얼과 빛나는 업적을 알 수 있다'가 34.9%, '현재의 우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가 30.2%, 지식과 교양을 높인다'가 27.1%이고, 2학년은 '현재의 우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가 41.7%, '지식과 교양을 높인다'가 26.6%, '조상의 얼과 빛나는 업적을 알 수 있다'가 26.2%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p < 0.001$ 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문계는 '현재의 우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가 42.9%, '지식과 교양을 높인다'가 32.1%, '조상의 얼과 빛나는 업적을 알 수 있다'가 17.6%로, 실업계는 '조상의 얼과 빛나는 업적을 알 수 있다'가 45.4%, '현재의 우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가 27.8%, '지식과 교양을 높인다'가 20.9%로 나타났다.

## 6) 역사지식 형성의 인적 자료

고등학생의 역사의식 형성에 영향력을 끼치는 인적 자료를 알아보기 위하여 “당신의 역사지식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은 누구입니까?”라고 질문을 하였다.

전체적인 응답 결과는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학교 선생님(69.7%), ② 학자, TV해설가(20.3%), ③ 부모형제(5.6%), ④ 친구(3.9%), ⑤ 학교 선배(0.3%)로 나타났다. 이로 볼 때 학교 수업을 통한 선생님의 영향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는 학자, TV 해설가 등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 변인별로 보면 성별로는  $p < 0.05$ 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학생은 학교 선생님이 73.9%로 남학생의 65.8%보다 더 높게 나타나 여학생이 교사에게서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계열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인문계 학생이 학교 선생님이 72.8%로 실업계의 66.3%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2> 역사지식 형성의 인적 자료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chi^2$	df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성 별	남	301 (51.5)	10.65*	4	198 (65.8)	64 (21.3)	19 (6.3)	18 (6.0)	2 (0.7)
	여	284 (48.5)			210 (73.9)	55 (19.4)	14 (4.9)	5 (1.8)	
학 년 별	1학년	295 (50.4)	1.06	4	207 (70.2)	57 (19.3)	19 (6.4)	11 (3.7)	1 (0.3)
	2학년	290 (49.6)			201 (69.3)	62 (21.4)	14 (4.8)	12 (4.1)	1 (0.3)
계 열 별	인문계	312 (53.3)	3.68	4	227 (72.8)	56 (17.9)	15 (4.8)	13 (4.2)	1 (0.3)
	실업계	273 (46.7)			181 (66.3)	63 (23.1)	18 (6.6)	10 (3.7)	1 (0.4)
전 체		585 (100)			408 (69.7)	119 (20.3)	33 (5.6)	23 (3.9)	2 (0.3)

(\* p<0.05)

#### 7) 역사지식 형성의 물적 자료

고등학생의 역사의식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물적 자료를 알아보기 위하여 “당신의 역사지식 형성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전체적인 응답 결과는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교과서(43.4%), ② TV, 라디오, 기타(17.9%), ③ 역사소설(26.2%), ④ 전문서적(9.6%), ⑤ 참고서(2.9%)로 나타났다. 이로 볼 때 학교 수업 외에도, TV, 라디오, 신문, 역사소설, 간행물 등을 통하여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V, 라디오 등의 역사 드라마나 역사소설의 편성이나 집필에도 이러한 학생들의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제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겠다.

배경 변인별로 보면 성별, 학년별로는 유의도에 큰 차이가 없고, 여학생은 교

과서(46.1%)에 남학생(40.9%)보다 조금 높게, 남학생은 전문서적 (12.0%)에 여학생(7.0%)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p<0.001$ 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문계는 교과서가 48.7%로 실업계의 37.4%보다 높게 나타났고, 실업계는 TV, 라디오, 기타에 25.6%로 인문계의 11.2%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로 볼 때 인문계 학생은 실업계 학생보다 학교 수업에 더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의 영향이 큰 반면, 실업계 학생은 인문계 학생보다 TV, 라디오 등에서 영향을 더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역사지식 형성의 물적 자료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chi^2$	df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성 별	남	301 (51.5)	5.49	4	123 (40.9)	56 (18.6)	79 (26.2)	36 (12.0)	7 (2.3)
	여	284 (48.5)			131 (46.1)	49 (17.3)	74 (26.1)	20 (7.0)	10 (3.5)
학 년 별	1학년	295 (50.4)	1.15	4	129 (43.7)	49 (16.6)	78 (26.4)	29 (9.8)	10 (3.4)
	2학년	290 (49.6)			125 (43.1)	56 (19.3)	75 (25.9)	27 (9.3)	7 (2.4)
계 열 별	인문계	312 (53.3)	21.96***	4	152 (48.7)	35 (11.2)	83 (26.6)	33 (10.6)	9 (2.9)
	실업계	273 (46.7)			102 (37.4)	70 (25.6)	70 (25.6)	23 (8.4)	8 (2.9)
전 체		585 (100)			254 (43.4)	105 (17.9)	153 (26.2)	56 (9.6)	17 (2.9)

(\*\*\*  $p<0.001$ )

#### 8) 향토사에 대한 관심

역사학습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모든 자료는 생동감 있는 학습자료가 될 것이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주변의 친숙한 교재인 향토사료의 활용을 통한 향

토사 학습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sup>33)</sup> 향토사 학습은 학생들로 하여금 역사 탐구를 위한 증거로 그들에게 친숙한 향토자료를 활용케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역사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그것은 학생의 경험과 이해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자료를 동원하여 역사를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게 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sup>34)</sup> 그러므로 향토사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어야 할 것이다. 향토사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거주지역내 문화재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은 다른 고장에 비하여 유물 유적 등의 문화재가 많다고 생각합니까?”라고 질문하였다.

<표 14> 거주지역내 문화재에 대한 인식도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chi^2$	df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성 별	남	301 (51.5)	5.75	4	3 (1.0)	28 (9.3)	74 (24.6)	142 (47.2)	54 (17.9)
	여	284 (48.5)			1 (0.4)	14 (4.9)	70 (24.6)	150 (52.8)	49 (17.3)
학 년 별	1학년	295 (50.4)	3.02	4	2 (0.7)	22 (7.5)	74 (25.1)	153 (51.9)	44 (14.9)
	2학년	290 (49.6)			2 (0.7)	20 (6.9)	70 (24.1)	139 (47.9)	59 (20.3)
계 열 별	인문계	312 (53.3)	17.39**	4		22 (7.1)	77 (24.7)	173 (55.4)	40 (12.8)
	실업계	273 (46.7)			4 (1.5)	20 (7.3)	67 (24.5)	119 (43.6)	63 (23.1)
전 체		585 (100)			4 (0.7)	42 (7.2)	144 (24.6)	292 (49.9)	103 (17.6)

(\*\* p<0.01)

33) 교육부(1992), 전계서, p. 133.

34) 전인봉(1995), “향토사와 유적지 답사 학습을 통한 역사의식 함양,” 『現場教育優秀論文集』 제1집, 제주도교원단체연합회.

전체적인 응답 결과는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매우 많다(0.7%), ② 많은 편이다(7.2%), ③ 보통이다(24.6%), ④ 적은 편이다(49.9%), ⑤ 전연 없다(17.6%)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그 인식 정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 역사 교사나 학생들은 향토사에 대한 관심을 새로이 하여야 할 것이다. 또, 이것은 역사학습 시간에 향토사의 자료 이용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체험학습으로 유적지 답사 등을 통한 향토 사료 학습이 활발히 이루어질 때, 향토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이며 애향심이 고양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모든 자료가 실제 수업시간에 잘 활용되어야 역사학습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배경 변인별로 보면 성별, 학년별로는 거의 유의할 만한 차이가 없다. 계열별로는  $p < 0.01$ 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적은 편이다'에 인문계가 55.4%, 실업계가 43.6%, '전연없다'에 인문계가 12.8%, 실업계가 23.1%로 응답하였다.

## 9) 역사에 대한 기대

과거의 역사는 미래의 올바른 역사창조와 현실생활을 바람직하게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교훈을 준다. 그 교훈의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전체적인 응답 결과는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매우 많이 준다(32.8%), ② 어느 정도 준다(58.5%), ③ 거의 주지 않는다(3.1%), ④ 전연 주지 않는다(0.7%), ⑤ 모르겠다(5.0%)로 나타났다. '매우 많이 준다'와 '어느 정도 준다'의 누가비율은 91.3%로 역사인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의 역사는 미래의 올바른 역사창조와 현재의 생활을 바람직하게 이끌어가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역사교육의 현장에서 이러한 점을 더욱 분명히 지도하여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줘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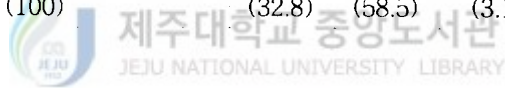
배경 변인별로 보면 성별로는  $p < 0.05$ 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남학생이 '매

우 많이 준다'에 38.9%로 여학생의 26.4%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거의 유의할 만한 차이가 없으며, 계열별로는  $p < 0.05$ 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인문계 학생은 '매우 많이 준다'에 38.8%로 실업계의 26.0%보다 높게 반응했다.

<표 15> 역사가 주는 교훈의 정도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chi^2$	df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성 별	남	301 (51.5)	12.25*	4	117 (38.9)	157 (52.2)	10 (3.3)	3 (1.0)	14 (4.7)
	여	284 (48.5)			75 (26.4)	185 (65.1)	8 (2.8)	1 (0.4)	15 (5.3)
학 년 별	1학년	295 (50.4)	5.31	4	91 (30.8)	178 (60.3)	8 (2.7)	4 (1.4)	14 (4.7)
	2학년	290 (49.6)			101 (34.8)	164 (56.6)	10 (3.4)		15 (5.2)
계 열 별	인문계	312 (53.3)	11.89*	4	121 (38.8)	168 (53.8)	9 (2.9)	1 (0.3)	13 (4.2)
	실업계	273 (46.7)			71 (26.0)	174 (63.7)	9 (3.3)	3 (1.1)	16 (5.9)
전 체		585 (100)			192 (32.8)	342 (58.5)	18 (3.1)	4 (0.7)	29 (5.0)

(\*  $p < 0.05$ )



## 2. 歷史意識 發達段階에 따른 分析

역사의식의 실태 파악의 방법은 종래에는 대체로 시간의식, 변천의식, 인과의식, 시대의식, 발전의식 등에 따른 분석을 해왔으나 점차 보다 구체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하는 추세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식, 변천의식, 인과의식, 시대의식, 발전의식 외에 역사주체의식, 역사의 독창성, 역사의식에서의 명분과 실리, 역사의 동인, 민족적 긍지, 현대의 역사에 있어서의 문제의식 등에 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1) 시간의식

역사학습과 불가분의 관계인 시간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과거·미래·현재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당신의 생각은?”이라는 질문을 하였다.

<표 16> 시간의식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chi^2$	df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성 별	남	301 (51.5)	1.93	3	112 (37.2)	88 (29.2)	18 (6.0)	83 (27.6)
	여	284 (48.5)			109 (38.4)	75 (26.4)	12 (4.2)	88 (31.0)
학 년 별	1학년	295 (50.4)	2.72	3	110 (37.3)	84 (28.5)	11 (3.7)	90 (30.5)
	2학년	290 (49.6)			111 (38.3)	79 (27.2)	19 (6.6)	81 (27.9)
계 열 별	인문계	312 (53.3)	10.38*	3	131 (42.0)	72 (23.1)	13 (4.2)	96 (30.8)
	실업계	273 (46.7)			90 (33.0)	91 (33.3)	17 (6.2)	75 (27.5)
전 체		585 (100)			221 (37.8)	163 (27.9)	30 (5.1)	171 (29.2)

(\* p<0.05)

전체적인 응답 결과는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현재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37.8%), ②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나 현재의 일이 아니라 보다 좋은 미래를 건설하는 일이다(27.9%), ③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며 어떻게 노력해도 과거에 결정된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5.1%), ④ 매우 중요한 사실은 과거나 미래의 사실이 아니라 이 현재를 보다 잘 사는 일이다 (29.2%)로 나타났다.

성별, 학년별로는 유의할 만한 차이가 없으며, 계열별로는 p<0.05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인문계 학생은 '현재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가 42.0%, '이 현재를 보다 잘 사는 일이다'가 30.8%, '보다 좋은 미래를 건설하는 일이다'가 23.1%로 응답을 하였으며, 실업계 학생은 '현재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가 33.0%, '보다 좋은 미래를 건설하는 일이다'가 33.3%, '이 현재를 보다 잘 사는 일이다'가 27.5%로 반응하였다.

## 2) 변천의식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천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상들이 이룩한 옛날 문화가 오늘날에 와서 변천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표 17> 변천의식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chi^2$	df	반 응 구 분			
					①	②	③	④
성 별	남	301 (51.5)	17.67***	3	52 (17.3)	192 (63.8)	46 (15.3)	11 (3.7)
	여	284 (48.5)			24 (8.5)	174 (61.3)	75 (26.4)	11 (3.9)
학 년 별	1학년	295 (50.4)	2.11	3	42 (14.2)	187 (63.4)	57 (19.3)	9 (3.1)
	2학년	290 (49.6)			34 (11.7)	179 (61.7)	64 (22.1)	13 (4.5)
계 열 별	인문계	312 (53.3)	7.00	3	32 (10.3)	209 (67.0)	59 (18.9)	12 (3.8)
	실업계	273 (46.7)			44 (16.1)	157 (57.5)	62 (22.7)	10 (3.7)
전 체		585 (100)			76 (13.0)	366 (62.6)	121 (20.7)	22 (3.8)

(\*\*\* p<0.001)

전체적인 응답 결과는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모든 면에서 매우 변천했다(13.0%), ② 상당한 부분이 변천했다(62.6%), ③ 조금은 변천했다(20.7%), ④ 거의 변천하지 않았다(3.8%)'로 나타났다. 이로 볼 때 대부분의 학생이 사회현상의 변화를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경 변인별 반응 결과를 보면, 성별로는  $p < 0.001$ 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남학생이 '모든 면에서 매우 변천했다'에 17.3%로 여학생 8.5%보다 높게 반응했다. 학년별, 계열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 3) 인과의식

역사적 사실들의 인과관련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면?”이라는 질문을 하였다.

<표 18> 인과의식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chi^2$	df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성별	남	301 (51.5)	1.83	3	57 (18.9)	190 (63.1)	46 (15.3)	8 (2.7)
	여	284 (48.5)			52 (18.3)	190 (66.9)	38 (13.4)	4 (1.4)
학년별	1학년	295 (50.4)	2.75	3	52 (17.6)	192 (65.1)	47 (15.9)	4 (1.4)
	2학년	290 (49.6)			57 (19.7)	188 (64.8)	37 (12.8)	8 (2.8)
계열별	인문계	312 (53.3)	13.70**	3	65 (20.8)	212 (67.9)	31 (9.9)	4 (1.3)
	실업계	273 (46.7)			44 (16.1)	168 (61.5)	53 (19.4)	8 (2.9)
전체		585 (100)			109 (18.6)	380 (65.0)	84 (14.4)	12 (2.1)

(\*\*  $p < 0.01$ )

전체적인 응답 결과는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역사적 전통과 정치 경제 문화의 힘에 의하여 결정된다(18.6%), ② 역사적 전통과 정치 경제 문화의 힘은 상당한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65.0%), ③ 역사적 전통과 정치 경제 문화의 힘은 별로 영향이 없다(14.4%), ④ 역사적 전통과 정치 경제 문화의 힘은 전연 관계가 없다'(2.1%)로 나타났다. 이로 볼 때 역사적 사실들의 인과관련의식도 대부분의 학생이 잘 인식하고 있어 역사학습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배경 변인별로 보면 성별, 학년별로는 유의할 만한 차이가 없으나 계열별로는  $p < 0.01$ 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인문계의 경우 '별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반응이 11.2%인데 비해 실업계의 경우 22.3%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도교사의 주의가 요망된다.

#### 4) 시대의식

역사적 사실들의 상호 관련성, 특수성 인지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역사를 공부해 보면 다른 시대와 구별할 만한 뚜렷한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전체적인 응답 결과는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모든 면에서 특징이 있다고 생각한다(27.2%), ② 보통 특징이 있다고 생각한다(34.7%), ③ 부분적으로 특징이 있다고 생각한다(34.7%), ④ 거의 특징이 없다고 생각한다(3.4%)로 나타났다. 시대의식도 대부분의 학생이 잘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대구조의식은 단순한 시대의 계열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시대가 하나의 덩어리(통합)로 왜 구조화 되는가를 아는 의식이다. 대체로 계통적인 역사학습은 순조롭게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경 변인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19> 시대의식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chi^2$	df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성 별	남	301 (51.5)	5.40	3	89 (29.6)	106 (35.2)	93 (30.9)	13 (4.3)
	여	284 (48.5)			70 (24.6)	97 (34.2)	110 (38.7)	7 (2.5)
학 년 별	1학년	295 (50.4)	2.10	3	75 (25.4)	101 (34.2)	110 (37.3)	9 (3.1)
	2학년	290 (49.6)			84 (29.0)	102 (35.2)	93 (32.1)	11 (3.8)
계 열 별	인문계	312 (53.3)	2.15	3	89 (28.5)	110 (35.3)	105 (33.7)	8 (2.6)
	실업계	273 (46.7)			70 (25.6)	93 (34.1)	98 (35.9)	12 (4.4)
전 체		585 (100)			159 (27.2)	203 (34.7)	203 (34.7)	20 (3.4)

### 5) 발전의식

한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역사가 발전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와 같은 역사적 발전으로 보다 나은 사회가 실현되어 왔음을 아는 능력이 발전의식이다. 학생들에게 민족사를 통하여 발전적 사관의 성취동기를 육성할 필요에서 조선건국에 대하여 의식을 조사하였다. 역사발전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조선이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 왕조인 조선을 건국한 것을 역사적으로 평가한다면?”이라는 질문을 하였다.

전체적인 응답 결과는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모든 면에서 조선은 고려시대와 다른 사회를 이루었다(12.6%), ② 상당한 부분에서 조선시대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했다(66.2%), ③ 체면 유지가 될 만큼 조선사회가 발전했다(9.2%), ④ 뚜렷한 발전은 없고 거의 전 시대를 답습했다(12.0%)로 나타났다. 대부분 잘 인지하고 있으나 '전 시대 답습'에 12.0%나 반응을 하고 있어 이에 유

의한 지도가 있어야겠다.

배경 변인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뚜렷한 발전은 없고 거의 전 시대를 답습했다'에 2학년(9.3%)보다는 1학년(14.6%)이, 실업계(10.6%) 보다는 인문계(13.1%) 학생이 약간 더 높은 반응을 하였다.

<표 20> 역사발전의식 (1)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chi^2$	df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성 별	남	301 (51.5)	0.60	3	40 (13.3)	195 (64.8)	28 (9.3)	38 (12.6)
	여	284 (48.5)			34 (12.0)	192 (67.6)	26 (9.2)	32 (11.3)
학 년 별	1학년	295 (50.4)	5.11	3	40 (13.6)	184 (62.4)	28 (9.5)	43 (14.6)
	2학년	290 (49.6)			34 (11.7)	203 (70.0)	26 (9.0)	27 (9.3)
계 열 별	인문계	312 (53.3)	5.45	3	31 (9.9)	208 (66.7)	32 (10.3)	41 (13.1)
	실업계	273 (46.7)			43 (15.8)	179 (65.6)	22 (8.1)	29 (10.6)
전 체		585 (100)			74 (12.6)	387 (66.2)	54 (9.2)	70 (12.0)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인류 사회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인간 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것이 고등학교 세계사 교육과정 성격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sup>35)</sup> 이러한 차원에서 세계 역사발전에 대한 시각을 통하여 역사의 발전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세계의 역사발전에 대하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전체적인 응답 결과는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발전해 왔다(35.6%), ② 물질적으로는 발달하여 왔으나 정신적으로는 그

35) 교육부(1995), 전계서, p. 145.

렇지 않다(43.2%), ③ 역사는 변화하기는 하나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16.4%), ④ 전체적으로 퇴보하고 있다(4.8%)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학생이 정신적인 발전을 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세계 역사발전에 전적으로 부정하는 학생도 21.2%로 나타나 이의 각별한 지도가 요구된다.

배경 변인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21> 역사발전의식 (2)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chi^2$	df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성 별	남	301 (51.5)	4.11	3	107 (35.5)	121 (40.2)	56 (18.6)	17 (5.6)
	여	284 (48.5)			101 (35.6)	132 (46.5)	40 (14.1)	11 (3.9)
학 년 별	1학년	295 (50.4)	5.85	3	113 (38.3)	129 (43.7)	44 (14.9)	9 (3.1)
	2학년	290 (49.6)			95 (32.8)	124 (42.8)	52 (17.9)	19 (6.6)
계 열 별	인문계	312 (53.3)	5.74	3	113 (36.2)	143 (45.8)	46 (14.7)	10 (3.2)
	실업계	273 (46.7)			95 (34.8)	110 (40.3)	50 (18.3)	18 (6.6)
전 체		585 (100)			208 (35.6)	253 (43.2)	96 (16.4)	28 (4.8)

## 6) 역사주체의식

역사의 주체를 인식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역사는 대체로 무엇에 의하여 좌우되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전체적인 응답 결과는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조물주의 뜻에 의하여(5.5%), ② 훌륭한 국왕이나 영웅에 의하여(15.9%), ③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 국가에 의하여(34.5%), ④ 우리 민족의 자주적 역량에 의하여(44.1%)로 나타났다.

다.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가에 의하여'가 34.5%로 높게 나타난 것은 좀더 주체적인 입장에서 국사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22> 역사주체의식 (1)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chi^2$	df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성 별	남	301 (51.5)	17.48***	3	24 (8.0)	60 (19.9)	91 (30.2)	126 (41.9)
	여	284 (48.5)			8 (2.8)	33 (11.6)	111 (39.1)	132 (46.5)
학 년 별	1학년	295 (50.4)	1.40	3	17 (5.8)	49 (16.6)	106 (35.9)	123 (41.7)
	2학년	290 (49.6)			15 (5.2)	44 (15.2)	96 (33.1)	135 (46.6)
계 열 별	인문계	312 (53.3)	19.16***	3	8 (2.6)	49 (15.7)	127 (40.7)	128 (41.0)
	실업계	273 (46.7)			24 (8.8)	44 (16.1)	75 (27.5)	130 (47.6)
전 체		585 (100)			32 (5.5)	93 (15.9)	202 (34.5)	258 (44.1)

(\*\*\* p<0.001)



배경 변인별로 보면 성별로는  $p < 0.001$ 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여학생은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가에 의하여'에 39.1%로 남학생의 30.2%보다 높게, 남학생은 '훌륭한 국왕이나 영웅에 의하여'에 19.9%로 여학생의 11.6%보다 좀더 높게 반응했다. 학년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계열별로는  $p < 0.001$ 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인문계가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가에 의하여' 40.7%로 실업계 27.5%보다 높게 나타나 지도교사는 이에 유의한 지도가 있어야 하겠다.

현대사 속에서 나타난 주체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반도 분단의 책임은?”

이라는 질문을 하였다.

<표 23> 역사주체의식 (2)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chi^2$	df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성 별	남	301 (51.5)	6.22	3	76 (25.2)	164 (54.5)	49 (16.3)	12 (4.0)
	여	284 (48.5)			53 (18.7)	183 (64.4)	38 (13.4)	10 (3.5)
학 년 별	1학년	295 (50.4)	3.86	3	73 (24.7)	174 (59.0)	39 (13.2)	9 (3.1)
	2학년	290 (49.6)			56 (19.3)	173 (59.7)	48 (16.6)	13 (4.5)
계 열 별	인문계	312 (53.3)	2.82	3	64 (20.5)	193 (61.9)	46 (14.7)	9 (2.9)
	실업계	273 (46.7)			65 (23.8)	154 (56.4)	41 (15.0)	13 (4.8)
전 체		585 (100)			129 (22.1)	347 (59.3)	87 (14.9)	22 (3.8)

전체적인 응답 결과는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미국 소련 등의 외세(22.1%), ② 국민적 통합을 이루지 못한 민족적 역량 부족으로(59.3%), ③ 당시 민족 지도자들의 국제환경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14.9%), ④ 가혹한 식민통치의 후유증으로(3.8%)로 나타났다. 남북 분단의 원인은 강대국들의 국가 이익 대립과 이들과 연결된 국내 정치 세력들의 분열 등 복합적 원인이 있으나<sup>36)</sup>, 상당수의 학생이 한반도 분단의 책임을 주체적 입장에서 민족적 역량 부족이라는 국내적 요인에서 찾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현실 사회와 기존의 모든 것에 대해 비판의식을 갖게 되는 시기이므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아진다. 우리가 자주독립의 역량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겼던 것이 국토분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

36) 문교부(1989), 『통일·안보교육 지침서』, 장학자료 제68호, p. 26.



과를 보인 것이라고도 생각된다.<sup>37)</sup>

배경 변인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 7) 역사의 독창성

우리 나라 역사의 독창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 나라의 문화나 중국 문화를 비교해 보면 그 관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표 24> 문화의 독창성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chi^2$	df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성 별	남	301 (51.5)	7.38	3	49 (16.3)	158 (52.5)	66 (21.9)	28 (9.3)
	여	284 (48.5)			48 (16.9)	173 (60.9)	49 (17.3)	14 (4.9)
학 년 별	1학년	295 (50.4)	1.63	3	44 (14.9)	167 (56.6)	61 (20.7)	23 (7.8)
	2학년	290 (49.6)			53 (18.3)	164 (56.6)	54 (18.6)	19 (6.6)
계 열 별	인문계	312 (53.3)	0.95	3	51 (16.3)	181 (58.0)	57 (18.3)	23 (7.4)
	실업계	273 (46.7)			46 (16.8)	150 (54.9)	58 (21.2)	19 (7.0)
전 체		585 (100)			97 (16.6)	331 (56.6)	115 (19.7)	42 (7.2)

전체적인 응답 결과는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대부분은 독창적이라고 생각한다(16.6%), ② 반반 정도의 독창성을 볼 수 있다(56.6%), ③ 상당한 부분이 같다(19.7%), ④ 거의 모방적이다(7.2%)로 나타났다.

모든 사회는 자기들의 문화가 우월하다고 믿는 문화적 자민족중심주의 사상

37) 문교부(1989), 「통일·안보교육 지도자료」, 장학자료 제60호, p. 64.

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자민족 중심주의는 국수주의적인 폐쇄성으로 흐르지 않는 한 애국심과 자긍심을 갖고 한 집단의 단결과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더욱이 식민사관을 대표하는 문화적 주변성을 극복해야 할 우리의 처지로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전체 26.9%의 학생이 부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음을 주목하여 수업현장에서 우리 문화 독창성을 인식할 수 있는 역사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겠다.

배경 변인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 8) 역사의식에서의 명분과 실리

역사의식에서의 명분과 실리의 기준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신라와 당이 나당 연합군을 조직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데 대한 당신의 생각은?”이라는 질문을 하였다.

전체적인 응답 결과는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민족의 반역적인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다(20.5%), ② 민족 통일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다(35.2%), ③ 신라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통합할 수가 없었다(15.9%), ④ 당의 야심을 미처 간파하지 못한 외교정책이었다(28.4%)로 나타났다. 그런데 ‘민족의 반역적인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다’가 20.5%로 단순한 판단 기준으로 비판적인 견해를 보인 학생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보다 구조적, 종합적으로 역사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배경 변인별로 보면 성별로는  $p < 0.001$ 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학생은 ‘민족의 반역적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다’가 26.2%로 여학생의 14.4%보다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은 ‘민족 통일을 위해 필요한 조치다’가 44.7%로 남학생 26.2%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계열별로는  $p < 0.001$ 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문계는 ‘민족의 반역적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다’가 24.4%로 실업계의 16.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실업계는 ‘민족 통일을 위해 필요한 조치다’가 42.5%로 인문계의 28.8%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25> 역사의식에서의 명분과 실리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chi^2$	df	반 응 구 분			
					①	②	③	④
성 별	남	301 (51.5)	27.01***	3	79 (26.2)	79 (26.2)	56 (18.6)	87 (28.9)
	여	284 (48.5)			41 (14.4)	127 (44.7)	37 (13.0)	79 (27.8)
학 년 별	1학년	295 (50.4)	1.80	3	64 (21.7)	97 (32.9)	46 (15.6)	88 (29.8)
	2학년	290 (49.6)			56 (19.3)	109 (37.6)	47 (16.2)	78 (26.9)
계 열 별	인문계	312 (53.3)	19.47***	3	76 (24.4)	90 (28.8)	43 (13.8)	103 (33.0)
	실업계	273 (46.7)			44 (16.1)	116 (42.5)	50 (18.3)	63 (23.1)
전 체		585 (100)			120 (20.5)	206 (35.2)	93 (15.9)	166 (28.4)

(\*\*\* p<0.001)

#### 9) 역사발전의 동인



역사발전의 동인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당신은 역사발전의 동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전체적인 응답 결과는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경제발전이 역사를 움직인다(14.4%), ② 정치가의 활동이나 외교정책 등이 역사를 움직인다(17.1%), ③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위대한 영웅이다(7.7%), ④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이름 없는 민중이다(60.9%)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대중의 힘’이 부각되는 추세를 반영한 답변이라 생각된다.

배경 변인별 반응 결과를 보면, 성별, 학년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역사발전의 동인 두번째로 남학생은 ‘정치가의 활동이나 외교정책’(18.3%)을 들고 있는데 비해 여학생은 경제발전(16.2%)을 들어 차이를 보인다. 계열별로는

p<0.01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문계는 ‘이름 없는 민중의 힘’에 67.3%로 실업계의 53.5%보다 높게 응답을 하였다. 실업계는 ‘정치가의 활동이나 외교정책’에 20.5%로 인문계의 14.1%보다 높게 나타났고, ‘위대한 영웅’에 10.6%로 인문계의 5.1%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26> 역사발전의 동인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chi^2$	df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성 별	남	301 (51.5)	6.27	3	38 (12.6)	55 (18.3)	30 (10.0)	178 (59.1)
	여	284 (48.5)			46 (16.2)	45 (15.8)	15 (5.3)	178 (62.7)
학 년 별	1학년	295 (50.4)	3.42	3	47 (15.9)	55 (18.6)	19 (6.4)	174 (59.0)
	2학년	290 (49.6)			37 (12.8)	45 (15.5)	26 (9.0)	182 (62.8)
계 열 별	인문계	312 (53.3)	14.16**	3	42 (13.5)	44 (14.1)	16 (5.1)	210 (67.3)
	실업계	273 (46.7)			42 (15.4)	56 (20.5)	29 (10.6)	146 (53.5)
전 체		585 (100)			84 (14.4)	100 (17.1)	45 (7.7)	356 (60.9)

(\*\* p<0.01)

#### 10) 민족적 긍지

민족적 긍지에 대한 의식으로 “역사를 공부하면서 당신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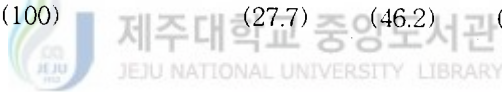
전체적인 응답 결과는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 (27.7%), ② 그런대로 살아간다(46.2%), ③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16.9%) ④ 외국으로 갈 수만 있다면 이민 가겠다(9.2%)로 나타났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운

명이다'와 '외국으로 갈 수 만 있다면 이민 가겠다'가 전체의 26.1%로 상당수에 이르러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우리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적 지도가 있어야겠다.

<표 27> 민족적 긍지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chi^2$	df	반 응 구 분			
					①	②	③	④
성 별	남	301 (51.5)	32.03***	3	113 (37.5)	116 (38.5)	50 (16.6)	22 (7.3)
	여	284 (48.5)			49 (17.3)	154 (54.2)	49 (17.3)	32 (11.3)
학 년 별	1학년	295 (50.4)	2.59	3	90 (30.5)	133 (45.1)	46 (15.6)	26 (8.8)
	2학년	290 (49.6)			72 (24.8)	137 (47.2)	53 (18.3)	28 (9.7)
계 열 별	인문계	312 (53.3)	1.29	3	87 (27.9)	145 (46.5)	55 (17.6)	25 (8.0)
	실업계	273 (46.7)			75 (27.5)	125 (45.8)	44 (16.1)	29 (10.6)
전 체		585 (100)			162 (27.7)	270 (46.2)	99 (16.9)	54 (9.2)

(\*\*\* p<0.001)



배경 변인별로 보면 성별로는 남학생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가 37.5%로 여학생의 17.3%에 비해 보다 긍정적이다. 학년별, 계열별로는 유의할 만한 차이가 없으나 1학년보다는 2학년이 민족에 대한 긍지가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11) 현대 역사에 있어서의 문제의식

현대의 역사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오늘날 세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직접 서술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많은 학생들이 성의껏 답해 주었으나, 응답하지 않거나 2개 이상을 기술한 학생도 많아 유사한 주제별로 빈도를 조사하여 그 순위만으로 자료 처리하였다.

<표 28> 현대의 세계에 대한 문제의식

구분	순위	1	2	3	4	5
남		환경오염	핵	인간성상실	전쟁	지구종말
여		환경오염	인간성상실	핵	빈부격차	전쟁
1학년		환경오염	핵	전쟁	인간성상실	지구종말
2학년		환경오염	핵	인간성상실	빈부격차	전쟁
인문계		환경오염	핵	인간성상실	빈부격차	전쟁
실업계		환경오염	핵	전쟁	인간성상실	빈부격차
전체		환경오염	핵	인간성상실	전쟁	빈부격차

전체적인 반응 결과는 환경오염, 핵, 인간성상실, 전쟁, 빈부격차순으로 나타났다. 현실의 절실한 문제로 떠오른 환경오염 문제가 단연 1순위로 인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환경교육을 위한 독립과목을 설립토록 하고 고등학교인 경우 1996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환경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교육은 환경교과에서만이 아니라 전 교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련사항이 나올 때마다 적극적인 교육이 있어야 하겠다. 고등학교 사회과에서는 사회문제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이의 적절한 지도가 요구된다.

배경 변인별로 보면 성별에서 남학생은 5순위로 지구종말로 응답하였고, 여학생은 2순위로 인간성상실, 4순위로 빈부격차를 들어 전체적인 반응과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3, 5순위로 전쟁, 지구종말로 응답한 것이 주목된다. 계열별로는 인문계 학생은 5순위로 전쟁을 들고 있으나, 실업계 학생은 3순위로 들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볼 때 바람직한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학생들 사이에서의 최근 관심사를 파악하여 적절한 교육적 지도가 있어야겠다.

## V. 結論 : 要約과 提言

본 연구는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역사의식을 조사 분석하여 바람직한 역사의식 형성의 방향과 학습지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데 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보면, 역사의식의 기저면에서 역사학습에 대한 흥미는 69.0%의 학생이 관심을 보였으며, 인문계가 실업계보다 높게 나타났다.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시기는 중 2, 3학년이 55.2%, 초등학교 14.4%, 중 1학년 14.4%로 나타나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 3학년에 이르는 과정에서 역사에 대한 관심이 싹트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인문계 학생은 초등학교에 19.9%, 19.2%, 여학생과 실업계 학생은 8.8%, 9.2%로 나타나 남학생과 인문계 학생이 보다 일찍 역사에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역사 영역별로는 문화사가 40.2%, 정치사가 25.1%, 사회경제사가 14.5%로 관심을 보였다. 남학생과 인문계 학생은 정치사에 29.2%, 31.7%, 문화사에 34.9%, 32.7%로 여학생과 실업계 학생은 문화사에 45.8%, 48.7%로 각각 나타났다. 남학생과 인문계 학생은 정치사, 문화사에 고른 관심을 보인 반면 여학생과 실업계 학생은 문화사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역사학습의 필요성은 대부분(89.4%)의 학생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인문계 학생은 '매우 필요하다'에 31.2%, 35.9%, 여학생과 실업계 학생의 19.7%, 25.6%보다 높게 나타났다. 역사학습의 목적은 '현재의 우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가 35.9%, '조상의 얼과 빛나는 업적을 알 수 있다'가 30.6%, '지식을 풍부히 하고 교양을 높인다'가 26.8%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목적의식에 따른 학습동기 유발을 통한 학습효과의 극대화에 역사교사의 연구와 지도가 있어야겠다. 역사지식 형성의 인적, 물적 자료로는 학교 선생님이 69.6%로, 교과서가 49.9%로 각각 가장 높았으며, TV, 라디오 해설가, 역사소설 등 학교수업 외적인 것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주지역 내 문화재에 대한 인식도를 보면, '적은 편이다'가 49.9%, '보통이다'가 24.6%, '전연없다'가 17.6%로 응답했다. 이와 같이 향토사에 대한 관심은 절대 다수가 거

주지역내 문화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등 학교수업에서 지역사회 자료를 많이 활용하지 않은 결과로 보여졌다. 역사가 주는 교훈의 인식 정도는 91.3%의 학생이 긍정적 대답을 하였다.

역사의식 발달단계에 따른 분석을 보면, 시간의식으로서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관점은 '현재를 알기 위해서 먼저 과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가 37.8%, '이 현재를 보다 잘 사는 일이다'가 29.2%, '보다 좋은 미래를 건설하는 일이다'가 27.9%로 나타났다. 역사변천의식, 인과의식, 시대의식에선 대부분의 학생이 잘 인식하고 있으며 역사학습에 있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발전의식에선 조선의 건국에 대하여는 '모든 면 또는 상당한 부분에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했다'가 78.8%로 응답하였다. 세계의 역사발전에 대하여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발전해 왔다'가 35.6%, '물질적으로는 발달하여 왔으나 정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가 43.2%로 나타났고, 역사발전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학생도 21.2%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역사발전에 있어서 구체적 시대를 제시하였을 때는 대부분의 학생이 인식하였지만, 세계 일반적으로 확대하였을 때는 많은 학생들이 부정적 대답을 하였다. 특히 정신적인 발달을 부정하는 학생이 상당수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 역사의 주체를 '우리 민족의 자주적 역량에 의하여'(44.1%)로 보는 학생도 많으나, '주변 국가, 외세'(34.5%) 등으로 보는 학생도 높게 나타나 좀더 주체의식 함양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한반도 분단의 책임을 통한 주체의식 조사에서는 '국민적 통합을 이루지 못한 민족적 역량 부족으로'가 59.3%로 나타나 상당수의 학생이 한반도 분단의 책임을 주체적 입장에서 찾으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문화의 독창성을 긍정하는 학생은 73.2%로 많으나, '상당한 부분이 같거나 모방적이다'라는 학생이 26.9%로 나타나 우리 문화의 독창성, 나아가 역사의 독창성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있어야겠다. 역사의 명분과 실리에 대한 의식으로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한 생각을 질문하였는데 '민족통일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다'가 35.2%, 당의 야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외교정책이었다'가 28.4%로 나타났고, '민족의 반역적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다'가 20.5%로 나타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식에서 단순한 비판의식보다는 좀더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겠다. 역사 발전의 동인은 '이름 없는 민중의 힘'이 69.9%, '정치가의 활동이나 외교정책'이 17.1%, '경제발전'이 14.4%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대중의 힘'이 부각되면서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응답으로 보인다. 민족적 긍지 조사에선 '그런 대로 살아간다'가 46.2%,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가 27.7%,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가 16.9%, '외국으로 이민갈 수 있다면 이민가겠다'가 9.2%로 나타나 민족적 긍지를 갖지 못한 학생들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역사학습을 통하여 이들 학생의 바람직한 역사의식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현대 세계의 문제점 인식에선 환경오염, 핵, 인간성상실, 빈부격차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현대 사회의 문제점으로 환경오염의 심각함을 잘 인식하고 있으므로 사회교과에서도 사회문제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지도가 요구된다.

이상과 같이 볼 때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역사학습에 있어서 학생들이 좀더 성동감 있는 사료학습으로서 지역사회의 문화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유적지 답사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향토사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켜 역사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한편, 세계 역사의 인식을 위해서 국사도 세계사와 연계시켜 자연스럽게 세계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또한 세계사적 차원에서 우리 나라의 주체적 입장을 확고히 할 수 있고 우리 문화의 특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나아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야겠다. 그리고 시대사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민족사의 특성을 인식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올바른 역사학습의 산물로 바람직한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좀더 민족적 긍지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배경 변인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역사의식 기저의 조사에서 계열별 차이인데 이것의 가장 큰 요인은 계열별 교육과정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차이를 감안할 때 바람직한 역사의식 형성을 위한 보다 효율적 역사학습이 되도록 역사교사의 연구와 지도가 있어야겠다.

본 조사분석은 학생자신의 실태분석에 그치고 그 원인을 분석하지 못한 점에서 미비한 점이 있다. 또한, 역사의식은 가변적인 것인 만큼 앞으로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역사의식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나와야겠다.

## 參 考 文 獻

### <單行本>

- 康宇哲(1975), 「歷史研究 方法과 그 教育的 接近」, 探究堂.
- \_\_\_\_\_ (1992), 「역사란 왜 배우는가」, 교학사.
- 문교부(1989), 「통일 · 안보교육 지도자료」, 장학자료 제60호.
- 문교부(1989), 「통일 · 안보교육 지침서」, 장학자료 제68호.
- 문교부(1989), 「고등학교 국사과 교육과정해설」, 삼진인쇄주식회사.
- 교육부(1992), 「고등학교 교육과정(Ⅰ)」,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1995),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해설」,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李元淳 外(1975), 「歷史科教育」, 서울 :韓國能力開發社.
- \_\_\_\_\_ (1985), 「歷史教育」, 正音文化社.
- \_\_\_\_\_ (1994), 「歷史教育論」, 三營社.
- 李讚熙(1989), 「韓國社會科教育學概論」, 教育科學社.
- 崔載喜(1971), 「歷史哲學」, 菁林社.
- 崔敷鎬(1991), 「歷史教育의 現場」, 青年文化.

### <論 文 >

- 康宇喆(1978), “歷史教育과 歷史意識,” 「歷史教育」 제24집.
- 金麗沘(1975), “國史教育目標의 研究,” 「歷史教育」 제17집.
- 金有海(1977), “高等學校 學生의 歷史意識 構造에 관한 研究,” 「歷史教育」 제21집.
- 孫漢基(1987), “韓國高等學生의 歷史意識發達에 관한 調查研究,” 碩士學位論

- 文, 檀國大學校 教育大學院.
- 宋春永(1986), “歷史的 思考力을 伸張시키기 위한 史料 學習 方案,” 「社會科教育研究」
- 申東烈(1990), “高等學生의 歷史意識 發達段階와 效果의 指導 方案,” 「歷史教育論集」 제13·14합집.
- 李相喆(1972), “實存照明的 歷史哲學,” 「研究論叢」 2집, 서울대학교교육회.
- 전인봉(1995), “향토사와 유적지 답사학습을 통한 역사의식함양,” 「현장교육 우수논문집」 제1집, 제주도교원단체연합회.
- 卓昌植(1990), “江原道地域 高等學生의 歷史意識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江原大學校 教育大學院.
- 韓京子(1986), “歷史理解, 歷史意識 發達을 위한 教授學習 方法의 探索,” 「李元淳教授 華甲記念論叢」.



---

<Summary>

**Historical Consciousness of the High School Students  
in Cheju-Do**

Kang, Im-ha

Social Studie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Hang-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the historical consciousness of the high school students in Cheju-Do and then to give them the desirable historical consciousness, finally to provide the required materials for educating the historical consciousness to them.

585 academic or business high school students in Cheju city and Soguiipo city will join in this analysis. This paper is not only dealt with the basis of the historical consciousness and the development stages of that, but also uses the way of percentage and  $\chi^2$  verification in order to analyze the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and between grades and individuals.

The results summarized are as follows: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6.

---

This paper gives us an interesting understanding of the basis of the historical consciousness. The students are interested in learning of history but unfortunately they don't anything. Many students, however, are much interested in the studying of history. The period that they are most interested in history is when they are third grade in middle school. They like to learn history of culture(mostly), history of politics(seconlly), and history of social economy(thirdly). Most students feel the need for learning history. The purpose of learning history, they believe, is 'to help us understand what we are'(35.9 %), 'to make out our grandparents' spirit and achievements'(30.6 %) and 'to give us knowledge and culture'(26.8 %). Students get note of their information from texts and teachers. It is proved that they are also influenced by TV, radio and historical novel. Majority students have no understanding their local cultural assets, which means that the studies in school make little of the materials local community.

The development stages of historical consciousness are analyzed as follows. In their consciousness of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those who believe it is important to know the past before knowing the present are marked 37.8 percent. 29.2 percent believe in the importance of getting along with the present time. And the 27.9 percent students believe that the bright future most important. Although many students consider our history's topic to be the subjective. On the other hand, quite a few students tend to think of it as the surrounding counturies or outside power. As a result, it is strongly necessary to make them develop the subjective consciousness of history. Even if the students recognize the originality of our culture, 26.9 percent of them say many of our culture are not authentic. This fact tells us that we should teach and educate the originality of our culture and further the originality of our history. When the writer also asks the students the unification of three

---

Kingdoms in Sylla dynasty, 35.2 percent answer that it was necessary for the national unity; 28.9 percent answer that it was probably a policy made by mistakes because Sylla dynasty wouldn't find a sinister design by Dang, one of Chinese old kingdoms; 20.5 percent answer that it was against the national profit. Answering the factors and reasons producing the development of history, they agree that the development of history is resulted from the powerfulness of nameless of common people(69.9 %), politicians' activities or their foreign policies(17.1 %) and economic development(14.4 %). According to the survey of the national pride, it orders priority that 46.2 percent live without any difficulty in their country; 27.2 percent think they are pretty good in their country; 16.9 percent urge that it is just destiny; 9.2 percent will emmigrate if possible. Because many students have no national pride, the learning of history will help them get a desirable historical consciousness. They looked upon the environment pollution, neuclear, deprivation of humanity, wars, and gap between rich and poor in regular order as the problems of modern world.

The above survey is summarized in brief. There is no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grades. Then, It has meaningful diferences where two items show  $p < 0.05$ ; three items  $p < 0.01$ ; four items  $p < 0.001$ . It also provides us the meaningful differences between academic high schools and business high schools where two items show  $p < 0.05$ ; three items  $p < 0.01$ ; eight items  $p < 0.001$ . The outstanding difference is shown in the basis of historical consciousness. It is believed that the reason is resulted from the different education system accordance with academic high schools and business high schools. To solve these problems, the history teachers will have to study a more effective way of learning of history.







14. 조상들이 이룩한 문화가 오늘날에 와서 변천했다고 생각합니까?
- ① 모든 면에서 매우 변천했다.....( )
  - ② 상당한 부분이 변천했다.....( )
  - ③ 조금은 변천했다.....( )
  - ④ 거의 변천하지 않았다.....( )
15.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면?
- ① 역사적 전통과 정치 경제 문화의 힘에 의하여 결정된다.....( )
  - ② 역사적 전통과 정치 경제 문화의 힘은 상당한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 )
  - ③ 역사적 전통과 정치 경제 문화의 힘은 별로 영향이 없다.....( )
  - ④ 역사적 전통과 정치 경제 문화의 힘은 전연 관계가 없다.....( )
16. 역사를 공부해 보면 한 시대는 다른 시대와 구별할 만한 뚜렷한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모든 면에서 특징이 있다고 생각한다.....( )
  - ② 보통 특징이 있다고 생각한다.....( )
  - ③ 부분적으로 특징이 있다고 생각한다.....( )
  - ④ 거의 특징이 없다고 생각한다.....( )
17. 조선이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 왕조인 조선을 건국한 것을 역사적으로 평가한다면?
- ① 모든 면에서 조선은 고려시대와 다른 사회를 이루었다.....( )
  - ② 상당한 부분에서 조선시대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했다.....( )
  - ③ 체면 유지가 될 만큼 조선사회가 발전했다.....( )
  - ④ 뚜렷한 발전은 없고 거의 전 시대를 답습했다.....( )
18. 일반적으로 세계의 역사발전에 대하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발전해 왔다.....( )
  - ② 물질적으로는 발전하였으나 정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
  - ③ 역사는 변화하기는 하나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
  - ④ 전체적으로 퇴보하고 있다.....( )
19. 우리의 역사는 대체로 무엇에 의하여 좌우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① 조물주의 뜻에 의하여 .....( )
  - ② 훌륭한 국왕이나 영웅에 의하여.....( )
  - ③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가에 의하여.....( )
  - ④ 우리 민족의 자주적 역량에 의하여.....( )

20. 한반도 분단의 책임은?

- ① 미국, 소련 등의 외세.....( )
- ② 국민적 통합을 이루지 못한 민족적 역량 부족으로.....( )
- ③ 당시 민족 지도자들이 국제환경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
- ④ 가혹한 식민 통치의 후유증으로.....( )

21. 우리 나라의 문화나 중국 문화를 비교해 보면 그 관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대부분은 독창적이라고 생각한다.....( )
- ② 반반 정도의 독창성을 볼 수 있다.....( )
- ③ 상당한 부분이 같다.....( )
- ④ 거의 모방적이다.....( )

22. 신라와 당이 나당 연합군을 조직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데 대한 당신의 생각은?

- ① 민족의 반역적인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다.....( )
- ② 민족통일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다.....( )
- ③ 신라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통합할 수가 없었다.....( )
- ④ 당의 야심을 미처 간파하지 못한 외교정책이었다.....( )

23. 당신은 역사발전의 동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경제발전이 역사를 움직여 나간다.....( )
- ② 정치가의 활동이나 외교정책 등이 역사를 움직인다.....( )
- ③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위대한 영웅이다.....( )
- ④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이름 없는 민중의 힘이다.....( )

24. 역사를 공부하면서 당신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 )
- ② 그런대로 살아간다.....( )
- ③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
- ④ 외국으로 갈 수만 있다면 이민 가겠다.....( )

25. 오늘날 세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